

미국의 성장전략 사례

* 이 자료는 하시모토 히사요시(橋本久義) 일본 정책연구대학원 교수가 「일본경제신문 경제교실: 해외에서 배우는 성장전략(미국) 민간의 힘에 의한 창업의욕 고취('14.6.3)」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, 정리한 것임

- 아베 총리와 아베노믹스는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경쟁력 회복에 계기가 된 영리포트(young report)의 골자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
 - ① 연구개발세제의 우대조치 확대
 - ② 공동연구에 관한 독점금지법의 장벽철폐
 - ③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강화
 - ④ 노동조합과 산업계의 원활한 관계 형성
- 일본은 현 시점에서 규제완화와 함께 자금 등의 면에서 창업의욕을 높이는 정책이 긴급

□ 아베노믹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서 레이거노믹스

- 아베정권 출범 후 1년 반 동안 실시되어온 아베노믹스는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표방한 레이거노믹스와 비교되는 점도 적지 않음
- 미국이 베트남전쟁 후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해있을 당시, 레이건대통령은 알기 쉽게 대담한 경제정책을 실시했음
 - 왕년에 배우로서의 인기를 배경으로 명쾌한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밝아진 인상을 주었음
- 아베총리도 아베노믹스도 사회가 밝아졌다고 하는 점에서는 레이건대통령, 레이거노믹스와 크게 다를 바 없음
 - 안정된 정권기반을 배경으로 밝은 얼굴로 등장하여 3개의 화살이라는 알기 쉬운 표현으로 디플레이션의 탈출방향을 명확히 제시했음
- 레이거노믹스는 종래 수요중시의 정책에서 공급측을 중심하는 정책으로 선회한 점이 큰 특징임
 - ① 대규모 감세로 노동의욕을 향상시켜 투자와 저축을 촉진

- ② 규제완화·민영화 촉진으로 투자를 촉진시켜 생산성을 향상
 - ③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한편, 군비를 강화하여 강한 미국을 실현
 - ④ 통화량 공급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등 4가지 정책을 실행
- 1983년에는 경기회복으로 미국의 GDP가 레이거노믹스의 이전과 이후 기간 중 2배나 증가
 - 규제완화로 금융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감세와 용자조건 완화로 소비가 활발해졌기 때문임
 - 그러나 강한 미국을 실현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이 확대된 탓에 재정적자가 확대된 외에, 소비증가 따른 수입확대로 무역적자가 확대, 쌍둥이 적자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
 - 강한 미국은 달러화 강세를 야기함에 따라,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와 기계류의 해외생산이전이 가속화됨
 - 가전 등 내구소비재 분야에서는 RCA, 제니스·일렉트로닉스 등이 일본기업과의 경쟁에서 패퇴, 생산이 축소

□ 미국의 경쟁력 회복에 계기가 된 영 리포트

- 이에 미국 정부는 산업경쟁력위원회를 조직, 당시 존영(John. A. Young) 휴렛팩커드 사장을 중심으로 경쟁력 회복방안을 상세히 분석
 - 영리포트(young report)라 불리는 이 보고서는 연구개발세제의 우대조치 확대, 공동연구에 관한 독점금지법의 장벽철폐,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강화, 노동조합과 산업계의 원활한 관계 등을 제안
- 동 리포트는 미국 산업계에 큰 자극을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, 그 후 미국 정부의 연구개발·기술혁신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침
 - IT와 생명공학 분야의 육성을 강조한 결과, 현재 이들 분야에서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
- 당시 미국경제의 특기할 만한 점은 해외생산이 확대, 몇몇 국내 기업들이 도태되는 상황에서도 광공업생산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점임

- 제조업의 서비스산업화가 진행되고 소프트웨어 분야가 확대
- 나아가, 신흥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발하고 있었는데,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는 인텔,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델, 게이트웨이, 오러클 등의 기업들이 약진
- 그러나 미국정부의 신산업진흥책이 반드시 성공한 것은 아니었음
 - 규제완화와 소비의 증가로 창업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, 나아가 가전 등의 사업이 도태됨에 따라 우수한 기술자들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야만 했던 점이 결과적으로 신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진 면도 있음
 - 실제 벤처의 성지로서 실리콘밸리와 나란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루트128(보스톤 주변)등의 여타 지역은 같은 법률·제도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충분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음
-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데이빗카프란씨는 저서 『실리콘밸리 스피리트』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
 - 모종의 심리적 경향이 가진 사람이 실리콘밸리에 모여들기 때문인가는 모르나,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빨리 성공을 해야만 한다는 기분에 사로잡혀 있음
 - 기회는 짧기 때문에 지금 손에 넣지 않으면 내일은 사라질지도 모르며, 역으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좋다는 생각임
- 어느 레스토랑에는 매일 아침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벤처정신이 충만한 청년들과, 그들과 제휴함으로써 돈을 벌어보려는 매니저 후보나 투자자들이 모임
 - 이중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기술이나 사업계획을 설명하고, 어떤 사람들은 돈벌이가 되는 새로운 사업에 관한 상담을 하는가 하면, 어떤 사람들은 파트너를 찾아 테이블을 맴돌고 있음
- 성공하여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떠도는 소문을 얼마나 주의 깊게 듣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음
 - 실리콘밸리가 성공한 것은 이와 같은 좁은 장소에 많은 야심가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임

□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포인트로서 벤처 진흥

-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벤처 비즈니스의 진흥도 중요한 포인트임
 - 일본의 창업율과 폐업율은 각각 4.6%, 3.8%(2012년)으로 미국의 9.3%, 10.3%(2010년)의 절반정도에 지나지 않으며, 성장전략은 구미정도의 10%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
- 일본은 벤처진흥책이 시행된 지 20년이 경과되었는데도 벤처가 육성되기 어렵다고 함
 - 오랫동안 벤처육성기관에서 근무한 인원수가 벤처기업에서 고용되고 있는 인원수보다도 많다는 점도 야유의 대상이 되고 있음
- 그러나 일본에도 그동안 적지 않게 창업가들이 육성됨
 - 대학 벤처로서 스마트폰용 카메라의 손 흔들림을 방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,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포
 - 연두벌레를 배양하여 환경, 식량, 에너지,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글레나
 - 특수 펩티드합성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약품을 개발한 펩티드립
 - 간병인을 위해 보조적으로 동력원을 제공하는 사이버다인
 - 인간형 로봇의 개발기술을 평가받아, 구글에 매수된 샤프트
 - 자동운전차량 개발에 착수, 인텔의 출자를 받은 ZMF
 - 이 외에도 아직 성공했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이 100개 가까이 존재

□ 자금 등의 면에서 창업의욕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

- 창업율과 폐업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음 3가지임
 - 첫째, 창업자금의 대출 확대로서, 기존 제도 하에서는 금액이 너무 적음
 - 음식·소매점이라면 부족하지 않을지 모르나, 제조·개발형 벤처기업들에게는 불충분함
 - 둘째, 차입 시 개인보증을 완화해주는 것임

- 정부도 노력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이 좀처럼 관례를 바꾸려 하지 않아, 신용보증제도 등을 통해 과도하게 개인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
- 셋째, 전술한 실리콘벨리의 레스토랑 운영임
 - 일본에서는 여러 기관이 노력하여 청년들과 투자가들의 만남의 장을 만들고 있으나, 밀도가 낮고 고충이 많음
 - 어딘가 한 곳에서 집약, 야심을 가진 청년들이 언제라도 창업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여, 투자가나 학자들이 만나는 장소로 하는 것인데, 이 정도는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음
- 일본에서는 실리콘벨리와 같은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 꽤 어려우나, 전국 각지에서 창업기운이 돌기 시작하고 있음
 - 실리콘 벨리도 스텐포드의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창업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까지 20년 이상 걸린 만큼, 일본에서도 앞으로 창업 기운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 